

01 교회소식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제단

추수감사절을 맞아 사랑과 권능, 변화와 축복으로 세계를 이루는 만민중앙교회 성도가 받은 감사의 조건들을 되새겨본다.

02 생명의 말씀

진정한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열매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축복과 영혼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이다.

03 기획특집

신의 성품을 이루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 영으로 들어간 후 육의 흔적으로 인한 결여와 부족까지 채워야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

04 간증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네~”

주님을 만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박인식 집사와 이재록 목사 기도로 예쁜 손녀를 얻은 일본 스기우라 하루코 집사 간증.

만민뉴스

제660호 2014년 11월 16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올해 목자의 재창조 권능의 역사로 만민 성도들에게 여느 때보다 더한 감사와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 주 안에서 늘 보호해 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목도케 하시며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천국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셨다. 전 세계 만민을 향한 비전으로 힘차게 달려가게 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린다.

기독교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추수감사절을 맞아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심고 행한 것을 주 안에서 풍성한 열매로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11월 16일 추수감사주일 기념예배 시,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GCN 방송(www.gcntv.org)으로 생중계 되는 가운데 ‘권능’(마 16:13~16)이라는 말씀을 전하며 저녁예배 시에는 성찬식을 거행한다. 2014년 추수감사절을 맞아 목자의 권능 안에서 한 해 동안 지켜 주시고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한 사랑과 감사의 향을 올려 드리기 바란다.

하나님께서 목자의 기도를 통해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보고 체험하며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소망

가운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교회 개척 이후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통해 다증후군 고위험군 판정을 받은 태아가 정상으로 태어나고 태중 아이의 성별이 바뀌는 역사는 물론, 임태의 축복과 각종 질병이 치료되는 권능의 역사를 체험한 성도들이 참으로 많다(관련간증 4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각종 재해와 사건, 사고, 질병으로부터 성도들을 항상 보호해 주셨다. 지난 32년간 병원에 한 번 가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성도가 허다하고, 설령 교통사고를 당해 폐차돼도 성도들은 조금도 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은 간증이 무수히 많다.

더욱 감사한 것은 성도들의 영적 믿음이 성장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며 아버지 하나님을 꼭 닮은 자녀로

변화되고자 힘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급속한 영의 흐름 가운데 주의 종과 성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크게 성장함으로 올해 부활절에는 영의 평준화를 이룰 정도로 많은 사람이 영의 마음을 이루었다(관련간증 4면).

전 성도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감사 조건이 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제단의 일원이라는 사실이다. 전 세계 170여 개국에 송출되는 GCN 방송과 문서선교,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의학적으로 증거하는 WCDN(세계기독교사네트워크)을 통해 주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사명을 함께 이뤄감으로 하늘나라 상급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영혼이 잘되는 만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이 넘쳐나고 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1~2)

진정한 열매

다는 것입니다. 또는 '이 정도 사명을 맡아서 감당해야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 성도 바라볼 수 있느냐' 생각하며, 상급만을 좇아 달려오지는 않았는지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직분을 귀히 여기는 마음, 상급을 바라보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원하시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상급이나 직분보다는 보이지 않더라도 참된 것에 마음을 둔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을까?', '이 환경을 통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이 환경을 통해 바라보며 구해 나가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궁구하며 기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잘되는 것입니다. 마음 그릇도 점점 더 커지고 덕과 사랑도 점점 더해지면서, 결국에는 주님을 닮은 온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主)가 무엇이고 부(副)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행합니다. 주된 일은 영혼이 잘되는 일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육은 죽어지고 성령으로 영을 낳아야 합니다.

여기서 날마다 죽어진다는 것은 영적인 충성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충성은 맡겨진 일에 대한 충성보다 중요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의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 선해지고, 사랑을 베풀어 가야 합니다.

혹여 나는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에 치우친 나머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을 얼마나 잘 보살피 주며, 상대의 유익을 얼마나 구해 주었는지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말로 상처를 주거나 실족시키고, 자기 의와 틀을 고집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맡겨진 일을 감당하려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난 사명만 중시하고 그 일을 맡

겨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열매들을 더욱 온전히 맺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맺혀지는 축복의 열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도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은 구원의 은총을 받기에 합당할 만큼 행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크신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대신 버리신 것입니다.

이처럼 크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른 채 살아가던 우리를 먼저 만나 주셨고,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크고 놀라운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열매를 맺는 만큼, 축복의 열매가 맺힙니다. 계명을 지키므로써 그 증거를 내보이면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는 증표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정녕 사랑하므로 육신의 일 하나를 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이 이전과 확연히 달라집니다. 일의 형통함이나 문제가 해결되는 속도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10개를 심고 열심히 일해 15개를 거뒀다면, 이제는 30개, 60개도 거둘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 맺혀지는 축복의 열매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므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꾼들이 많습니다. 어떤 성도는 아침에 집을 나서면, 하루 종일 심방하고 전도하다가 저녁에야 집에 들어가 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그 후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교회로 옵니다.

또한 낮에 열심히 일터에서 일을 하고, 퇴근 후에는 조금 남는 시간을 이용해 심방하

고 전도하며 구역예배로 모이기도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축복을 주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의 향을 내는 일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마음껏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영의 마음으로 행해 맺혀지는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맡은 분야에 영혼을 보내 주시기 때문에 부흥이 이뤄집니다.

일꾼들은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부모의 심정으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 영혼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 참된 복을 주시는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려 주어야 하지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자기 집처럼 편안히 깃들 수 있는 영적인 보금자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받은 상처가 치료될 수 있도록,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이 녹을 수 있도록 따뜻한 사랑으로 보듬어 줘야 하지요. 이렇게 일꾼들 편에서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영혼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며, 구원에 이르게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이라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길 원하십니다. 또한 의와 틀로 상대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과 선행으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보금자리를 준비한 일꾼에게 영혼을 보내 주셔서 많은 부흥의 열매가 맺히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증거를 나타내십니다. 이 약속은 확실하며 변함이 없지요. 그리고 참된 열매, 진정한 열매는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얻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축복과 영혼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지런한 농부는 추수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합니다. 농사가 아니라 해도 어떤 분야든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며 투자하는 이유는 반드시 열매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므로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야 하며 그 열매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열매는 무엇인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받은바 은혜와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받아 헌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믿음과 경륜에 따라 받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처음에 지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여전히 순수하게 간직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 더 마음이 쏠리지는 않았는지요? 여기서 '다른 것'이란 단지 세상의 좋은 것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무슨 사명을 맡고 있다' 하는 마음, 즉 직분과 명예를 중시하는 마음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살펴야 한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육의 흔적’과 ‘신의 성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통회자복을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믿음의 반석을 지나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때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고(히 12:4),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렸지만(살전 5:22) 흔적처럼 희미하게 남아있는 육의 모습이 있다.

비유를 들면, 새로 산 물건에는 흠집이 없지만 이미 사용한 물건은 아무리 깨끗이 닦는다 해도 사용한 흔적이 남게 된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성장하면서 접한 육의 지식과 경험, 부모에게 전달받은 성품이나 기질 같은 것들이 흔적처럼 남아 있다.

가령, 어떤 사람은 덕과 사랑이 넘치지만 기질적으로 맺고 끊는 것이 확실하지 않아 끊어야 할 때 정확히 끊지 못한다. 그런가 하면 베풀기는 즐거하는데 기분에 따라 즉흥적인 사람도 있고, 늘 성실하고 바르지만 다소 차갑고 딱딱한 느낌을 주는 사람도 있다.

이것을 ‘육의 흔적’이라고 하며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으려면 육의 흔적을 온전히 변환시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영의 사람이 되었다 해도 육의 흔적을 변환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온 영을 이루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베드로후서 1장 3~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성령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욕으로 인해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돼 하나님을 꼭 닮은 자녀로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3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앞으로 말미암음이라
4 이로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다음으로 베드로후서 1장 5~7절을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성령으로 영을 낳으며 영적인 믿음을 소유할 뿐 아니라 덕과 함께 영의

지식을 채워야 한다. 나아가 절제와 인내, 경건과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을 채워야 한다.

“5 이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은,
6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7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 8~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흡족하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강조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힘써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다.

“8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9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케 하심을 잊었느니라
10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육의 흔적의 변환 과정

육의 흔적이 신의 성품 안에 녹아지면서 영적인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 1단계 : 육의 흔적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여’를 채우는 단계

1. 사랑의 결여를 채워야 한다.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용서하고 품어 주는 것뿐 아니라 때에 따라 책망하고 외면하는 것도 사랑임을 깨닫는다. 그런데 사랑이 결여된 사람은 언제 어떤 형태로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지 분별하지 못함으로 일방적으로 보듬어 주고 용서만 하거나, 일방적으로 책망하고 질책해 바로잡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2. 영의 지식의 결여를 채워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쌓았지만 마음에 온전히 영으로 이루지 못한 것이 결여로 자리 잡은 경우이다. 자기가 깨닫고 이해한 것을 전부로 여기며 더 깊은 차원을 생각지 못한다. 똑같은 영의 지식이라고 해도 그 말씀을 얼마나 영으로 이루었느냐에 따라 활용 범위와 방법이 달라진다. 영의 지식이 결여된 사람은 자기가 마음에 이룬 한계 안에서만 그 말씀을 적용한다.

3. 온전한 선의 결여를 채워야 한다. 이 단계는 악으로 나오는 상대에 대해 어떤 감정도 없는 차원이다. 하지만 온전한 선에 비하면 선의 2단계 정도라 할 수 있다. 비유를 들면, 규정 속도가 시속 60km인 1차선 도로에서 뒤차가 비상등을 켜 채 급히 달려와도 여전히 시

속 60km를 지키면서 비켜 주지 않는 것과 같다. 급한 일이 있을지 모르 뒤차의 상황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나는 진리를 행한다고 생각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온전한 선의 결여가 있는 것이다.

❖ 2단계 : 육의 흔적으로 인해 나타나는 ‘부족’을 채우는 단계

1. 사랑의 부족을 채워야 한다. 가령 이해하고 용서해야 할 때, 어느 선까지 해야 할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이해하고 용서하되 어떤 경우는 한계를 그어 줘야 하고, 어떤 경우는 도가 넘치게 해 줘야 한다. 사랑의 부족은 이런 분별이 잘 안 되는 차원이다. 더 깊이 있고 섬세한 사랑의 차원까지는 아직 깨닫지 못한다.

2. 영의 지식의 부족을 채워야 한다. 영의 지식의 결여 단계보다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헤아리기는 하지만 아직은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하나님 말씀을 대입할 때 상황에 따라 각 사람에게 달리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똑같은 영의 지식도 얼마나 영으로 깊이 이루었느냐에 따라 활용 범위와 방법이 달라진다. 한 말씀으로 열 가지를 활용하고 적용한다면, 5~6가지밖에 활용하지 못하는 차원이다.

3. 온전한 선의 부족을 채워야 한다. 규정 속도가 시속 60km인 일차선 도로에서 뒤차가 비상등을 켜 채 급하게 달려올 때 뒤차의 입장을 생각해서 빨리 달리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최대한 상대를 배려하지만 매번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죽고 싶었던 세상, 이제는 하나님 축복 속에 행복이 넘칩니다”

박인식 집사
(무안만민교회, (주)우림이앤씨 대표)



▲ 아내 김은경 집사, 딸 소망 자매, 아들 경민 형제와 함께한 박인식 집사.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로 올라와 주경야독으로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며 공부했습니다. 그 뒤 전남 광주광역시로 내려와 중화요리 주방장으로 일하면서 1988년에 결혼했지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성격 차이로 싸움이 잦았고,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하신 것처럼 저도 술이 취해 들어오면 대드는 아내를 때리곤 했습니다. 이런 제 자신을 보며 저는 '이렇게 사느니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1993년부터는 전기 일을 시작했는데, 도박에 손을 대면서 많은 빚을 졌습니다. 술과 폭력, 도박까지 하니 아내는 술에 취해 빗초산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지요. 다행히 아내는 새광주만민교회 성도의 전도를 받아 2003년 5월부터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교회에 다니면서 강건해졌고, 행복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아내를 교회에 태워다 주면서 예배를 몇 번 드리게 됐는데, 화상을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 평안하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새로워지고 싶은 마음에 2004년 1월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일을 지키지 않고 어머니를 모시고 놀러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일로 저는 주일성수를 하며 술과 담배도 끊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요. 새롭게 시작한 소방설비업도 잘 됐습니다.

하지만 2008년경부터 전남지역 건설업계에 불황이 깊어지면서 제가 경영하는 회사도 큰 타격을 입어 3~4억 원의 부채를 지게 됐습니다. 마음이 곤고해진 저는 의지할 곳을 찾아 세상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다시 구숨을 쫓아 술, 여자, 도박에 빠지고 말았지요. 3개월 정도 방탕하게 살아가던 중, 마음에서 “그만 하라. 그만 하라. 그만 하라.” 는 음성을 듣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2009년 1월부터 4월까지 3일 금식을 일곱 차례 하며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또한 회개와 결단의 마음을 담아 당회장님께 편지를 올렸지요. 2009년 5월, 당회장님께서 방탕하게 살았던

저를 책망하시지 않고 온화한 눈빛으로 미소를 지으시며 “집사님,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라고 안타깝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눈물로 중보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의 사랑에 보답해 드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궁구했습니다.

2010년 11월경부터는 무안만민교회에 출석하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 힘쓰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자 사업터에도 축복이 임했지요. 2013년에는 약 57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고, 사업 규모가 확장돼 나갔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일감이 없어서 직원을 줄이는 상황이었지만 저희 회사는 꾸준히 일감이 들어왔지요.

또한 2013년 10월에는 저 같은 사람을 만나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 당회장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되새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출근하기 전 1시간 정도 기도를 하면 회개의 눈물이 많이 흘렸지요. 이 시간들을 통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반석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2014년 새해부터는 하루 종일 현장에서 일해 아무리 피곤해도 집에 돌아오면 목욕한 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정자세로 앉아 성경을 정독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하는 하나님 말씀들을 기록하며 그 마음을 이루기 위해 기도해 나갔지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우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라면 마음 다해 예물을 힘껏 심었습니다. 그러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업터에도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큰 축복은 아름다운 영의 마음을 이루어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가족이 하나 돼 매일 기도하며 교회에서도 본이 되는 행복한 가정이 됐지요. 죽고 싶었던 세상, 이제는 살맛 납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와 행복을 알게 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결혼 7년 만에 딸이 예쁜 공주를 얻었어요”

스기우라 하루코 집사
(일본 나고야만민교회, 76세)

저는 뇌 손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큰 아들 스기우라 마사히코를 위해 갖가지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호전되지 않아 저는 마지막으로 교회를 선택했지요. 때마침 이다 시에서 '이재록 목사 초청 신수 지역 연합대 성회'가 개최돼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목도했습니다.

감사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청력이 회복되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는 등 참으로 놀라웠지요. 저는 큰 아들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마음이 들어 그 이듬해부터 큰 아들과 함께 매년 만민중앙교회에서 개최된 '2회 연속 특별 부흥성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아들은 호전됐고 마침내 찬양 중에 손뼉을 치면서 눈물까지 흘리는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었지요. 저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매우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예배도 잘 드리고 스스로 한금도 할 뿐 아니라 몸

도 강건해져 즐겁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막내딸 사토 히로미도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요. 결혼 후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딸과 사위는 불임클리닉을 다니며 아이를 갖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딸의 잉태를 놓고 금식하고 작정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013년 2월, 한국 만민중앙교회에 가시는 도끼구미 미야코 담임 목사님에게 정성껏 준비한 예물과 딸의 사진을 보내며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해 5월, 시공을 초월한 당회장님의 사진 기도를 통해 딸은 임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올해 1월에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쁜 손녀가 태어나 가족 모두에게 큰 기쁨을 안겨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 딸 사토 히로미와 손녀, 총지도교사 이희선 목사, 스기우라 하루코 집사, 도끼구미 미야코 담임 목사(왼쪽부터).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남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동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서량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신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도로 529-32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로22길 27,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남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3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4201 207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3430-331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람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우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430-331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